

# 서평

『표해록』(漂海錄)을 통해 본  
최부(崔溥)의 위난 극복의 지혜와 리더십

최철호



# 『표해록』(漂海錄)을 통해 본 최부(崔溥)의 위난 극복의 지혜와 리더십



최 철 호

저술가/표해록기념사업회장

『표해록』은 최부(崔溥)가 쓴 중국 기행문학의 고전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때 추쇄경차관이란 직책으로 제주에 체류 중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수행원 42명과 함께 나주로 향해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의 갖가지 심문과 박해를 이겨내고 수행원 전원과 함께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책에는 149일 동안의 바다에서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혼은 물론 중국 땅을 밟은 이후의 긴 심문과 이동과정에서 다친 갖가지 위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明)의 사회, 문화, 제도, 풍속 등의 갖가지 내면적인 모습도 상세하게 관찰 기술함으로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뛰어넘는 기록 문학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온 책이다.

새로 간행된 『표해록』(최부 지음/최기홍, 최철호 옮김)은 최철호(표해록기념사업회 대표)가 한국 최초로 번역 출간한 선친(최기홍)의 번역본을 보완 하고, 여기에 전면적인 영문 번역과 동시에 한문 병기를 포함, 명실상부한 한글, 영어, 한문 등 3개국어로 된 '표해록 완결판'(연암문고, 아래 사진)이 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부 『표해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에서의 생사를 건 생존투쟁과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귀국하기까지 최부가 보인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지혜로운 리더십을 정리, 리더십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편집자 주>

## 1.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통솔력

최부 일행이 생사기로부터 헤매었던 상황은 아무래도 14일 간 바다에서의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전남 신안군에 소속된 초란도(草蘭島) 부근에서 윤정월 3일에 표류를 시작하여, 중국 절강성 임해현에 속한 우두외양의 한 해안에 17일 상륙하기까지 근 14일간 거의 난파된 배를 타고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폭풍과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42명의 역세고 고집이 센 군인과 선원들을 설득하며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35세의 최부의 냉철한 리더십이 돋보인다. 불과 35세의 선비인 최부는 이들을 어떻게 통솔하였을까. 고단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최부의 처신과 행동을 『표해록』의 주요 대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윤달 정월 5일, 바다에서 표류할 때 일행이 모두 익사할 처지에 놓이자, 최부는 동승한 일행을 구해 달라고 간절히 하늘에 축원한다.

“막쇠와 권송 등이 눈물을 흘리면서 최부에게 고했다. ‘상황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희망이 만무하니, 옷을 갈아입고 천명을 맞이하십시오.’ 최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했다.

인신과 마패를 가슴에 품고 상관과 상복을 갖추어 입고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비비며 하늘에 빌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충효와 우애만을 근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속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한을 사지도 않았고 직접 살해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더라도 이를 잘 살펴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임금의 명을 받아 나왔다가 아버지 상을 당하여 급히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저에게만 벌을 내려 주소서. 이 배에 타고 있는 40여 명이 죄 없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어찌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신다면 바람을 바꾸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여 주소서(莫金權松等拭淚謂臣曰 勢已迫矣 無復望已 請替換衣服 以待大命之止 臣如其言 懷印與馬牌 具喪冠與服 惴惴然援手祝天曰 臣在世唯忠孝友愛爲心 心無欺罔 臣無讐冤 手無殺害 天雖高高 實所鑑臨 今又奉君命而往 葬父喪而歸 臣不知有下罪咎 倘臣有罪 罰及臣身可也 同舟四十餘人 無罪見溺 天其敢不矜憐乎 天若哀此窮人 返風息濤)’

◇ 윤달 정월 10일, 배 안에는 한 통의 식수도 남아 있지 않는 등 먹고 마실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다행히도 배 안에 감귤과 청주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최부는 배 안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했더니, 감귤 50여 개와 술 두동이 나왔다. 최부는 한 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한 배에 있으면 호(胡)나 월(越)에서 온 사람들도 한마음이 된다네. 하물며 우리는 모두 한 나라 사람이요, 서로 정이 돈독한 같은 골육이 아닌가? 살게 되면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게 되네. 감귤 한 조각과 술의 한 방울이 천금과 같으니, 자네가 맡아 함부로 쓰지 말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의 극심한 기갈을 해소하도록 하거나(同舟則胡越一心 況我等皆一國人 情同骨肉 生則一時俱生 死則一時俱死 唯此柑酒 一滴千金 汝其掌之 毋得濫費 以救舟人一刻之渴可也)”

◇ 윤달 정월 15일, 배가 오랜 풍파에 시달린 나머지 만신창이가 된 배의 틈새로 바닷물이 쉴새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틈새를 막는 작업, 물푸는 작업에 일부 선원들은 오불관언하며, 거의 자포자기 심정에 빠졌다. 최부는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물이 이 지경으로 새고 있고, 선원들 또한 이와 같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잘났다고 함부로 뽐내면서, 어찌 앉아서 물에 빠져 죽기를 보겠는가? 이내 정보 등 여섯 명이 달라붙고 최부도 몸소 물을 바가지로 퍼내니 물은 거의 바닥이 났다. 허상리 이하 10여 명도 좀 기운을 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臣曰 漏水若此 舟人之解體又若此 我其妄自尊大 坐見溺死 胡可哉 遂與程保等六人 親自刮水幾盡 尙理以下十餘人 亦稍有奮力而起者)”

## 2. 정치(精緻)한 기록

하늘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하루의 시간대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새벽 녘:

동틀 무렵의 1시에서 3시 사이의 시간대는 清晨(청신), 凌晨(능신), 詰朝(힐조), 將曙(장서) 欲曙(욕서), 侵晨(침신), 遲明(지명), 曉(효) 丑時(축시) 雞鳴(계명), 四更(사경: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대는 曙(서), 昧爽(매상), 黎明(여명), 平明(평명), 曉(효), 五更(오경: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등으로 해가 돋거나 막 돌을 무렵의 시간대를 표현

아침:

朝조, 辰時(진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오후:

晡時(포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午後(오후: 12시 이후부터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시간대)

저녁:

薄暮(박모: 해가 산으로 막 넘어갈 무렵의 시간대), 暮(모: 해가 서산에 진 무렵) 昏, 黃昏(황혼: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진 무렵), 夕(석: 달이 막 뜰 때)

밤:

夜一更(일경: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夜二更(이경: 밤 9시에서 11시 사이), 夜三更(삼경: 밤 11시에서 1시 사이), 夜半(야반; 한밤중 즉 밤 11시에서 1시 사이), 人定時(인정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한밤중):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부 일행이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목마름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마침 비가 내리자 비 한 방울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한다.

◇ 윤달 정월 10일의 상황을 보자.

“이때 비가 내렸다. 선원들은 손으로 차양 끝을 치켜들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갈모나 솔같은 그릇으로 걸러져 나오는 물을 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돛자리를 구부려서 받들고 흩뿌리는 빗발을 받기도 하고 돛대와 노를 세워 그 사이에 종이 끈을 묶어 똑똑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자도 있었다. 한 주걱 정도의 물 몇 모금을 얻으려고 혀로 핥기도 하였다(至是因雨下 舟人或以手擎篷檣 取其滯滴者 或以笠帽若鼎器 貯其滲漉者 或屈席子 奉其灑汎者 或建桅楫中約紙繩 承其淋瀝者 期待些少一勺 以舌舐之)”

“최부는 즉시 간직해 둔 옷 두서너 벌을 꺼내, 거이산에게 지시하여 옷을 비에 적신 다음 이를 짜서 저장시켰더니, 물이 거의 대여섯 병이 되었다. 김중에게 지시하여 숟가락으로 물을 나누어 마시도록 하였다. 김중이 숟가락을 들자 선원들이 입을 크게 벌렸다. 마치 제비 새끼가 먹이를 받아먹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혀를 놀리고 숨을 내쉬는 등 좀 생기를 찾는 듯했다(臣卽點出所藏衣數領 令巨伊山承雨露洽 取汁以貯 幾至數瓶 令金重用匙分飲之 重執匙以舉 舟人張口 有如燕兒望哺然 自是始能掉舌噓氣 稍有向生之心)”

최부 일행은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 모진 매를 맞으며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한다.

◇ 윤달 정월 12일 절박한 상황을 드라마 등 영상물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기재(記載)했다.

“먼저 정보의 옷웃과 바지를 벗기고는 묶은 다음 매질을 했다. 그런 다음 작두로 최부

옷고름을 자르고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서 손을 등 뒤로 하고 무릎을 꿇린 다음 묶더니, 최부의 왼쪽 팔을 몽둥이로 일고여덟 번 매질을 하며 말했다. ‘목숨이 아깝거든 금은을 내놓는 것이 좋을 거다.’ 최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내 몸을 저미고 뼈가 부서진다 해도 어디서 금은을 구한다 말이나?’ 도적은 최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최부의 결박을 풀어주고 말한 내용을 글로 써보라고 하기에 바로 글로 써서 주었다. 도적의 두목이 화를 냈다.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보를 가리키며 소리치다가 최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곧 최부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다시 묶어 거꾸로 매달았다. 작두를 어깨에 메고 최부의 목을 겨누고 끊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실수를 하여 오른 어깨 모퉁이를 쳤는데, 칼날은 위쪽으로 향해 있었다. 두목이 다시 칼을 메고 최부를 베려고 할 때, 한 도적이 칼을 멘 자의 팔을 잡고 이를 막았다. 해적 패거리 모두 왱자지껄 떠들었지만 최부는 어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때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이리저리 허둥지둥하며 숨을 곳을 찾아 도망쳤으나 숨을 만한 곳이 없었다. 오직 김중과 거이산 등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최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윽고 도적 두목은 최부를 마구 짓밟고 선원들을 위협한 후, 패거리를 이끌고 떠나면서 배의 닻, 노 및 여러 기물들을 절단하여 바다에 던져버렸다. 마침내 도적들은 자신들의 배로 최부의 배를 큰 바다로 밧줄로 끌고 간 뒤 풀어줬다. 도적들이 배를 타고 사라졌을 때는 밤이 이미 깊었다(先奪程保衣袴 網而杖之 次以斫刀 截臣衣紐 赤身剝奪 背手曲脚以綁之 以杖杖臣左臂七八下曰 你若愛生 便出金銀 臣大號曰 臣可斃骨可碎 何所得金銀乎 賊不曉臣言 解臣縛 許以寫意 臣即寫之 賊魁怒 瞋目張喙 指程保以叫 指臣而叫 卽曳臣頭髮 還縛倒懸 荷斫刀指臣頸 斷之 刀適誤下 右肩隅 刃翻在上 賊又荷刀將斬臣 有一賊來 把荷刀之臂以沮之 賊黨齊聲大叫 莫知所爲 是時 舟人惴懼失常 犇竄無地 唯金重巨伊山等 攢手拜跪 冀活臣命 俄而 賊魁蹂躪 臣身 喝嚇舟人 引其黨而出 截去臣船 釘艦諸緣 投諸海 遂以其船 導繹臣船 指放大羊 然後乘 其船遁居 夜已闌矣”

조난자의 신분으로 강행군을 하면서도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력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 3월 12일, 동창부(東昌府)에 도착, 어느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앵무새를 보고, 그것에 대한 묘사는 특히 그러하다. 마치 유명 화가가 세필(細筆)로 그린 화조화(花鳥畫)를 보는 것 같다.

“집에는 정교하게 만든 바구니가 걸려 있는데, 그 안에 새를 기르고 있었다. 그 안의 새는 비둘기 모습이였다. 새의 부리는 붉고 길었으며, 부리의 끝은 약간 노란색에 꼬부라져 있었으며 새의 꼬리 길이는 8~9촌(寸) 가량이였다. 눈은 황색이었고 등은 푸른색, 머리와 가슴은 수묵색(水墨色)이였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듣는 재주가 있었다. 말은 맑고 부드러웠으며, 음질이 분명했다. 사람이 말하면 다 따라 했다(人家掛籠畜有鳥 其形如鳩 其味赤而長 其吻微黃而鉤 其尾長八九寸 眼黃背青 頭與胸水墨色 其性曉解人意 其語音清和圓轉 曲節分明 人或有言皆應之)”

옷의 앞섶을 왼쪽으로 여미는 방식, 즉 좌임(左衽: 오른쪽 섶을 왼쪽 섶 위로 덮는 방식)은 고대 중국의 일부 소수민족의 복장인데 반해, 우임(右衽)은 왼쪽 섶을 오른쪽 섶위로 덮는 복장으로 중원 일대의 한족(漢族)의 상징적인 복식이였다. 복식에 관해서도 최부의 세밀하고 면밀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 4월 23일, 이에 관한 최부의 기술을 보자.

“북경은 금나라 때는 중도(中都), 원나라 때는 역시 대도(大都)가 되었다. 오랑캐 군주가 잇따라 도읍했기 때문에 모든 풍속은 북방 오랑캐로부터 습득한 것이였다. 지금 명나라는 옛날의 지저분한 때를 씻어내고 옷의 앞섶을 왼쪽으로 여미던 사람들에게 의관을 갖추는 옷차림을 취하도록 했으며, 조정의 문물은 성대하여 가히 볼만 하였다. 그러나 여염(閭閻) 사람들은 도교와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는 숭상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업에 종사하고 농사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의복은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데, 남녀가 같은 옷차림이였다. 음식은 비린내 나고 더러웠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식기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습관이 없어지지 않았다(北京卽金爲中都 元亦爲大都 夷狄之君 相繼建都 其民風土俗 皆襲胡風 今大明一洗舊染之污 使左衽之區 爲衣冠之俗 朝廷文物之盛 有可觀焉 然其閭閻之間 尙道佛不尙儒 業商賈不業農 衣服短窄 男女同制 飲食腥穢 尊卑同器 餘風未殄)”

또한 곳곳에 이를 때마다 거리를 이(里)로 표기했는데, 정확하면 里, 정확하지 않으면 이여(里餘), 혹은 里許(許: 가량, 정도, 쯤)으로 기술했다. 중국 고대에서 거리 단위인 1리는 300보였다고 한다.

중국인과의 대화는 거의 다 필담(筆談)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당 부분 구술(口述)도 현지인 발음대로 기재(記載)되어 있다. 일부만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 3월 8일, 최부는 호송 관원 부영에게 자신이 들었던 “大大的烏也機”에 관해서 묻는다.

“최부가 다시 물었다. ‘내가 여기에 도착한 이후 귀국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가리키며 ‘따따더 우예지(大大的烏也機)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오?’ 부영이 말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대인을 부르는 말이오. 이곳 사람들이 당신들이 일본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한 거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이오(臣又問曰 自我到此貴地人 皆指我等曰 大大的烏也機 此何等語也 榮曰 此日本人呼我處大人之訓 此方人 恐你等從日本來 故有此言)’”

“大大的烏也機”의 大大는 중국어 발음으로 따따(dada는 연장자를 지칭), 烏也機는 일본어인 おやじ(아버지 혹은 손윗사람) 중국어 발음은 wuyaji로, 남을 높이는 말인 대인(大人)을 부르는 말이다.

◇ 3월 24일, 최부는 천진위(天津衛)를 지나면서 尹兒灣, 蒲溝兒의 “兒” 즉 “얼(er)화음”을 중국 북쪽 현지인의 발음을 그대로 기록했다. 尹兒의 중국어 발음은 “인얼”이며, 蒲溝兒의 발음은 “푸꺼우얼.” 얼화음은 혀를 감아올려 내는 발음으로 중국의 북쪽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남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쪽을 통과하며 기록한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자고, 해구리 하동순경소, 도화구, 윤얼만, 포구얼, 하로미점을 지나 양촌역(楊村驛)에 도착했다(遡河過丁字沽 海口里 河東巡更所 桃花口 尹兒灣 蒲溝兒 下老米店 至楊村驛)”

◇ 5월 11일, 영원위(寧遠衛)를 통과하면서도 “얼화음”의 寨兒山을 기록했다. “寨兒”의 중국어 발음은 “자이얼Zhaier(r)”이다.

“다시 상수포를 지나 연산역에 도착했다. 역의 남쪽에는 호로투(胡蘆套), 서쪽에 삼수산, 북쪽에 채열산이 있었다. 역의 이름은 이에서 딴 것이었다(又過桑樹鋪至連山驛 驛之南有胡蘆套 西有三首山 北有寨兒山 驛之得名以此)”

### 3. 윤리관과 충효정신

최부의 중국 역사와 고전에 대한 박학다식은 심문하는 중국 관리조차 휘둥그레진 눈으로 말문이 막힐 정도였지만, 조난의 역경 속에서도 최부가 실천궁행(實踐躬行)한 예의범절, 신의(信義)와 충효정신은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윤달 정월 12일, 최부 일행은 영파부 근처의 바다에서 해적을 만난다. 정보 등이 최부 앞에 빙 둘러 무릎을 꿇고, 상복을 벗고 사모와 단령을 입어 관리의 위엄을 보여야 앞서 해적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진언을 한다. 이에 최부는 “바다에서 표류한 것은 하늘의 뜻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다시 살아난 것도 하늘의 뜻이네. 이 섬에 도착하여 이 배들을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일세. 하늘의 이치는 본래 곧은 것이라서, 어찌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며 거짓 행동을 하겠는가(臣日 漂流海上 天也 屢經死地以復生 天也 到此島而遇此船 亦天也 天理本直 安可違天以行詐乎)”라며 이들의 건의를 묵살한다.

◇ 윤달 정월 16일, 광주목리인 정보 등이 중국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중국 선원들이 해적이 아닌가 싶어 최부에게 관리의 예복을 입고, 위엄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건의하자, 최부는 “상복을 벗고 길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효가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은 신의가 아닐세. 죽음에 이를지언정 효와 신의가 아닌 것은 차마 할바가 아니네. 나는 당연히 정의를 순리대로 따르겠네(釋喪即吉 非孝也 以詐欺人 非信也 寧至於死 不忍處非孝非信之地 吾當順受以正)”라며 이들의 건의를 단호히 물리친다.

◇ 윤달 정월 17일, 최부는 배를 버리고 물에 올랐다. 앞으로 몰려 올 마을 사람들에게 일행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의 행동 지침을 최부는 그의 수하(手下)들에게 지시한다.

“우리나라는 예의지국이네. 우리가 비록 궁색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 이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예절을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만 하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 배리는 나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며, 군인들은 배리에게 마찬가지로 절을 해야 하네. 여러분은 절을 하는 순서를 거른다거나 어긋나서는 아니 되네. 더욱이 마을 앞이나 성안에서 군중이 모여 우리를 보고 있을 때는 반드시 손을 모아 절하고 행여 방자하거나 돌출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네(我國本禮儀之國 雖漂奔窘遽之間 亦當示以威儀 使此地人知我國禮節如是 凡所到處 陪吏等拜跪於我 軍人等拜跪於陪吏 無有過差 且或於里前 或於城中 有羣聚來觀者 必作揖禮 無敢肆突)” 이를 보고 군중 속에서 용모가 남다른 중국인이 나서며, 최부에게 말을 건넨다. “귀국이 예의지국임을 들은 지 오래 되었소. 과연 듣던대로요(聞貴國禮義邦久矣 果協所聞)”라고 찬탄을 하며 최부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 윤달 정월 21일, 최부는 군대 주둔지인 도저소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관원과 대화를 나눈다. 최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초상을 치르지 못하고, 연로한 어머니 생각에 통곡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하자, 그 관원은, “신하가 된 자는 나라를 위해 집안 일은 잊는 법이오. 당신은 나라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표류하였으니, 충을 위해 효를 희생해야만 하오. 왜 집 생각을 하는 것이오(爲人臣者國耳忘家 你因王事漂到于此 當移孝爲忠 何憶家爲)” 라고 힐난하자, 최부는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소. 어버이에게 극진히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가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소.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있소. 또한 해가 서산으로 지고 있소. 어찌 돌아가신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소(求忠臣於孝子之門 未有不盡孝於親而忠於君者 況風樹不止 日迫西山 安得而不思吾亡父與慈母乎)” 계속해서 중국 관원이 질문을 던진다. “당신 나라 임금의 성과 휘는?(你國王姓諱何)”, “효자는 차마 부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법이오. 누군가의 잘못을 들을 때는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소. 하물며 신하가 경솔하게 국왕의 휘를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겠소?(孝子不忍舉父母之名 故聞人過失如聞父母之名 況爲臣子其加以國君之諱 輕與人說乎)” 그가 말했다. “나라 밖에 있으니, 무방하지 않겠소?(越界無妨)”, “내가 조선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오? 신하가 된 자가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자신의 나라에 등을 돌리며 행위를 달리하고, 말에 변함이 있을 수 있겠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我不是朝鮮之臣乎 爲人臣者 其可以越

界以負其國 異其行 變其言乎 我則不如是也)”라고 최부가 항변을 하자, 심문하던 파총관도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지 고개를 주억거렸다.

#### 4. 미신의 배경과 과학적 사고

◇ 윤달 정월 14일, 최부 일행은 바다에 표류 중 지니고 있었던 의복, 양식 등은 해적에 겁탈당하고, 배는 난파되어 침몰할 시간이 다가오자 옥죄어오는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승선한 제주 출신의 군인 일부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최부의 탓이라고 불만을 투덜대자, 최부가 이들을 꾸짖는다.

“최부가 그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천지는 사심이 없이 공평하고, 귀신은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다네.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 재앙을 주는 데는 공평할 따름이네. 악한 자가 귀신에게 비위를 맞춰가며 복을 바란다고 해서 그에게 복을 내리겠는가? 착한 사람이 이단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제사를 분수에 맞춰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벌을 내리겠는가? 천지와 귀신에게 아침을 하고, 음식을 드린다고 해서 사람에게 벌과 복이 내린다는 말이 일찍이 있었던가? 절대로 이러한 이치는 없다. 더욱이 제사에는 일정한 등급이 있는데, 일반 백성이 산천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라네. 예에 어긋난 제사가 바로 사악한 신을 받드는 제사라네. 이러한 곳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복을 얻었다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네. 자네들, 제주 사람들은 귀신을 몹시도 좋아하여 산이나 습지, 하천과 늪에 모두 신사를 세우고 있네. 광양 같은 신사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네. 그렇다면 자네들이 바다를 건널 때 표류나 침몰하는 재앙은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臣誨之曰 天地無私 鬼神默運 福善禍淫 唯其公耳 人有惡者 諂事以徼福 則其可福之乎 人有善者 不惑邪說 不爲黷祭 則其可禍之乎 曾謂天地鬼神爲諂事飲食 而降禍福於人乎 萬萬無此理也 況祭有常等 土庶人而祭山川非禮也 非禮之祭乃淫祀也 淫祀以獲福者 我未之見也 爾濟州人酷好鬼神 山澤川藪 俱設神祠 至如廣壤等堂 朝夕敬祀 靡所不至 其於涉海 宜無漂浸之患)’”

“그런데 오늘은 이런저런 배가 표류되고, 내일은 이리이러한 배가 침몰되는 등 표류나 침몰이 잇따르고 있네. 이래도 신들이 영험이 있고, 또한 그들에 제사를 지내면 복이

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네. 자네 군인들 모두 성심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신에게 영험이 있다면 나 혼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해서 자네들 40여 명이 재계 후 제사를 지낸 정성을 묵살할 수 있겠는가? 우리 배가 표류된 것은 오로지 우리가 서둘러 떠났고, 악천후를 만났기 때문일세. 제사를 저버렸다고 나를 탓하는데, 이 역시 미혹(迷惑)이 아니겠는가(然而今日某船漂 明日某船沈 漂沈之船 前後相望 是果神有靈應歟 祭能受福歟 況今我同舟 人不祭者唯我一人耳 爾軍人皆誠心齋祭而來 神若有靈 豈以我一人不祭之故 廢爾四十餘人齋祭之誠也 我之漂船 專是行李顛倒 不善候風之所致 反以廢祭尤我不亦惑乎) ”

◇ 2월 27일, 최부가 황하(黃河)와 회하(淮河)를 지날 때의 일이다. 호송 관원이 최부에게 귀산(龜山) 기슭에 신비한 동물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라의 우왕이 물을 다스릴 때 그 동물을 굶은 밧줄로 묶어 놓았더니, 회하의 물이 잠잠하게 흘렀다면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 동물의 모습을 한 그림을 지니고 있으면 회하의 바람과 파도의 어려움을 모면한다고 설명하자, 최부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그의 발언을 일축한다.

“그런 이야기는 이치에 맞지 않고 터무니 없는 말이라 믿을 수가 없소( 臣曰 此眞怪誕不經之說 不足信也) ”

◇ 3월 10일, 최부 일행은 제녕성(濟寧城)을 출발하여 분수갑(分水閘)을 지나 남왕호(南旺湖)에도착한다. 이어 계수포(界水鋪)와 노파갑(老坡閘)을 거쳐 분수용왕(分水龍王)의 사당에 이른다. 호송하는 중국 관원들이 사당에 제사를 지내야 풍파가 심한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다며 최부한테도 사당에 절을 해야 한다고 강권하자, 최부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들의 문답을 보자.

“분수용왕묘(分水龍王廟)에 이르렀다. 양왕이 그의 무리와 함께 사당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절을 했다. 그들이 최부 일행에게도 절하라고 권했다. 최부가 말했다.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후(諸侯)가 할 일이고, 선비나 서민은 조상에게만 제사를 지낼 뿐이오. 분수를 조금이라도 넘는다면 예가 아니며, 예가 아닌 제사는 사람이 아첨하는 것으로 보고 신이 흥향하지 않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천의 신에게

절을 하는 엄두를 내지 않소. 하물며 이런 내가 다른 나라의 제단에 어찌 절을 하겠소? 진훤이 말했다. '이곳은 영험이 있다는 용왕의 제단이오. 그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공손하게 제사를 지낸 후에야 길을 가고 있소. 그렇지 않으면 분명 풍파에 시달릴 것이오.' 최부가 말했다. '바다를 본 사람이라면 강 물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법이오. 나는 수 만리 바다와 거친 파도를 헤쳐온 사람이오. 이곳 중원에 있는 강물쯤이야 두려울 것이 못되오(至分水龍王廟 楊旺與其徒入廟中 焚香禮神以祭 令臣等亦拜 臣曰 祭山川 諸侯事 爲士庶人者 特祭祖考耳 少踰其分 非禮也 非禮之祭 人爲諂 神不享 故我在本國不敢拜山川之神 況可拜異國之祠乎 陳瑩曰此祠乃龍王祠也 有靈跡 故過此者 皆致恭拜祭 然後行 不然則 必有風濤之險 臣曰 觀於海者難爲水 我已經數萬里 大海暴濤之險 若此中土中江河之水 不足畏也)'"

## 5. 국가에 대한 안보 의식

◇ 윤달 정월 21일, 비왜지휘(備倭指揮)인 파총관이 최부를 심문하면서 조선의 군대 양식(兵糧)의 수량에 관해서 “당신 나라의 크기는 얼마나 되며, 부와 주는 몇 군데나 되고, 군량은 얼마나 되느냐(汝國地方遠近幾何 府州幾何 兵糧約有幾何)” 고 묻자, 최부는 “내 나라는 수천여 리에 달한다. 8개의 도(道)가 있고 그도에 주, 부, 군, 현이 3백여 곳이 있다. 병량에 대해서는 내가 유신(儒臣)으로 경험해 본 일이 없어서 그 수량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本國地方則無慮數千餘里 有八道 所屬州府郡縣 總三百有餘 兵糧則我以儒臣 未曾經諳 未詳其數)”라고 답하며, 병량의 수치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자, 다음 날 22일에 한 관원이 “당신이 군자감 주부를 지냈다고 했는데, 왜 병량의 수치를 모른다고 했느냐(你既爲軍資監主簿 何以曰不知兵糧之數)”며 다그친다. 이에 “나는 군자감에서 재직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전근이 되었소. 그래서 상세한 수치를 모른다(我爲軍資監未滿月見遞 故未詳)”고 능란하게 회피한다.

◇ 2월 4일, 소흥부에 도착해서 포정삼사(布政三司), 즉 군사, 행정 및 사법 담당 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최부는 다시 심문을 받는다. “처음에는 당신들을 약탈하는 왜인으로 여겨,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했다. 당신이 조선인이라면 당신 나라의 역대의 연혁, 도읍, 산천, 인물,

풍속, 제사 의식, 상제(喪制), 호구, 병제, 전부(田賦)와 관리의 예복 제도를 자세히 써서 가져오라. 역사의 기록물과 대조해 시비를 가릴 것이다(初以汝類爲倭船劫掠 將加捕戮 汝若是朝鮮人 汝國歷代沿革 都邑 山川 人物 俗尚 祀典 喪制 戶口 兵制 田賦 冠裳之制 仔細寫來 質之諸史 以考是非)”라고 하자, 최부는 막힘없이 상술한다. 그러나 호구, 병제 및 전부 등 안보에 관한 사항은 유신(儒臣)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답변한다. 또한 “중국에서 제주까지 거리는 몇 리나 되느냐(濟州距我中國幾里)”고 묻자, 최부는 뱃길의 거리를 “정확히 모르지만 보통 배가 큰 바다에서 순풍을 만나면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다. 우리가 제주에서 표류가 되었는데, 밤낮으로 따져본다면 29일 항해했다. 그리고 보면 중국에서 제주까지의 거리는 대략 수만 리가 될 것이다(大抵 船遇便風於大海 則日可行千里 今我自濟州浮海 折晝夜則凡二十九日 則自中國距濟州路 大槩數萬餘里矣)”고 과장한다. 음력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바다에서 표류한 뒤에 물에 올랐으니, 실제로는 밤낮을 포함하여 15일간이다. 29일간 항해 했다는 최부의 말은 이 역시 안보 의식의 발로다.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역사, 지리, 문학 등 다방면에 해박하고 정통한 최부가 인구수, 군사, 조세 제도를 모른다고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까지의 거리를 부풀려 진술하는 것을 보면 국가의 안보를 염려하는 최부의 공직상은 지금의 공무원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 6. 박학다식

중국 절강성 해안에 표착(漂着)한 최부는 왜구의 혐의를 받아, 몇 차례에 걸쳐 중국 관원의 철저한 심문을 받는다. 심문 과정에서 최부가 주저함이나 막힘없이 중국의 방대한 전거(典據)와 양국의 역사적 사실을 동원하여 진술을 하자, 심문하는 중국 관원은 최부의 해박한 지식에 탄복한다.

◇ 2월 4일, 진술을 마친 후 중국 관원은 최부에게 다과를 대접하는 한편 여러 음식을 선물한다. 최부는 시를 지어 사례를 한다. 이에 관련된 『표해록』의 기술을 보자.

“최부는 시를 지어 사례하는 한편, 두 번 절을 했다. 세 사상 역시 일어나서 공손히 답례를 했다. 그들이 최부에게 말했다. ‘사례의 시를 보니, 당신은 이 지방의 산천을 어떻게

이처럼 소상하게 안단 말이오? 이 지역 사람이 말해 준 것이 분명한 것 같소’, ‘사방을 둘러 보아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몸인데다, 말과 글은 통하지 않으니,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소? 나는 일찍이 중국의 지도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기억에 의존했을 뿐이오(臣卽做謝詩再拜 三使相亦起 答禮致恭 又謂臣曰 看汝謝詩 此地方山川 汝何知之詳 必此地人所說 臣曰 四顧無親 語音不通 誰與話言 我嘗閱中國地圖 到此臆記耳 對畢 臣與)”

◇ 2월 7일, 최부가 조선의 과거 제도에 관해 상세한 답변은 물론 주역의 이치에 관한 설명이 끝나자, 중국의 고위 관원들은 서로 눈길을 마주치며 놀라워한다.

“당신은 진실로 독서를 많이 한 문사요. 이곳 사람들이 당신을 참으로 몰라봤구려(兩大人 相顧目擊 謂臣曰 你實讀書士 此地人固不識也)”

## 7.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과 관련된 고구려 역사 관계

◇ 2월 17일, 최는 소주에 머물면서, 안찰어사의 심문을 받는다. 심문 과정에서 고구려 역사에 관한 문답이 있다. 『표해록』이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의 허구를 참증(參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 나라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군사를 물리쳤소? 최부가 말했다. ‘지략이 풍부한 신하와 용맹한 장수들은 병사를 덕행으로 통솔하기 때문에 병졸들은 모두 상급자를 받들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오. 그래서 고구려가 한낱 작은 국가지만, 천하의 백만 대군을 두 번이나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소(問曰 你國有何 長技能却隋唐之兵乎 臣曰 謀臣猛將用兵有道 爲兵卒者 率皆親上死長 故以高句麗一偏小之 國猶足以再却天下百萬之兵)”

2008년 7월 한국의 한 학술단체인 『민족연구』가 주관하여 항주의 절강대학에서 한국과 중국의 『표해록』 관련 학자들이 참석,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주제발표 후 한 참석자가 작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고대 역사에 편입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으나 1488년 최부가 기술한 『표해록』의 내용을 소개하며 중국의 고위 지방 관리조차 수와 당의 군대를 격퇴한 고구려를 우리나라의 고대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중국의 학자에게 묻자 그는 당황해 하며 묵묵부답하였다.

## 8. 중국 최고의 문헌적 가치를 지닌 “미산만익비(眉山萬翼碑)”

◇ 3월 5일, 최부는 유성진(劉城鎭)을 지나면서 황가갭(黃家閘)에 이르렀을 때 갭(수문)위에 있는 미산만익비가 있는 것을 보고 동행한 중국 관원에게 그 비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간청한다.

“황가갭에 이르렀는데, 갭 위에는 미산만익비가 있었다. 최부는 정보를 시켜 그 비를 볼 수 있도록 양왕에게 요청했으나, 양왕은 선뜻 응하지 않았다. 끈덕지게 조른 후에야 허락을 했는데 비석에 새긴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至黃家閘 閘上有 眉山萬翼碑 臣令程保告 楊旺請觀之 旺不肯 強而後許之 其碑撰略曰)” 비문의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했지만 북경대 거편자(葛振家) 교수는 “만익비는 운하사에 중요한 문헌으로, 그 비문으로 인하여 대운하는 명대(明代)에 이르러 운도(運道)의 기본틀이 잡혔고, 남북 물자 및 문화교류의 대동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비문의 소개는 우리나라 사적(史籍)과 지서(志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운하사 학자의 연구와 인용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표해록의 기록은 아주 진귀한, 첫째가는 학술적, 역사적 재료라고 그의 『최부표해록연구』에서 밝혔다. 『표해록』 여정을 답사한 한국의 표해록 연구가 박태근(朴泰根) 교수는 그의 답사기에서 이 만익비를 찾았으나, 수몰(水沒)로 이미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 9. 명나라 조정의 골칫거리였던 환관 발호와 폐해

최부는 중국 호송 관원의 입을 통해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 3월 8일, 최부가 노교역을 지날 때의 일이다. 태감(太監)이 수행원의 삼엄하고 화려한 호위를 받으며 여행하는 중에 동승한 뱃사람들에게 탄환을 난사하는 등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에 관해 최부와 중국 호송 관원의 대화를 들어 보자.

“진훤이 말했다. ‘배 안에서 저렇게 제멋대로 날뛰는 자가 바로 내관시오(陳萱曰 此舟中內官如此歪爲)’ 부영이 최부에게 물었다. ‘귀국에도 이러한 태감이 있소?(貴處亦有此太監否)’ 최부가 말했다. ‘우리나라의 내관은 궁중에서 물을 뿌리고 비로 쓰는 일을 하거나 왕명을 전달하는 일만 하고 있지, 관의 일은 맡지 않소.(我國內官只任宮中洒掃 傳命之役 不任以官事)’ 부영이 말했다. ‘태상황제가 환관을 신임하여 직책을 주었소. 그래서 저처럼 육형(肉刑)을 받은 자가 큰 권력을 지닌 근시(近侍)가 되었소. 문무관들 모두 그들에게 빌붙고 있소.(太上皇帝信任宦官 故若此刑餘人 持重權爲近侍 文武官皆趨付之)’”

## 10. 수차(水車)의 선진기술을 습득한 실용주의 사상

최부가 호송을 하는 중국 관리에게 수차, 즉 논에 물을 대는 장비의 제작과 운용 방법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당시 조선에는 주로 발로 밟아 돌리는 수차, 즉 도차(踏車)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부가 중국에서 배워 온 수전수차(手轉水車), 즉 손으로 돌리는 수차는 당시에는 최신식 장비였다고 한다. 실제 1496년 5월 지금의 중부권인 호서(湖西: 충북 제천의 의림지와 금강 상류의 서쪽)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연산은 그곳에 최부를 보내 중국에서 배워온 수차(水車)제조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여 가뭄을 극복하도록 했다. 이처럼 최부는 조난자의 신분으로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선진기술을 눈여겨 보고, 수차의 제작과 운용 방법의 습득(習得)에 성공을 한다.

◇ 3월 23일, 소흥부(紹興府)의 한 호숫가에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는 농부를 목격한 바 있는 최부는 정해현(靜海縣)을 지나면서 호송하는 관원에게 수차의 제작 방법을 집요하게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절을 보자.

“최부가 부영에게 말했다. ‘수차(水車)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소(願學水車之制)’ 부영이

물었다. ‘어디서 수차를 보았소?(你於何地見所謂水車乎)’ 최부가 말했다. ‘전에 소흥부를 지날 때 호숫가에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소. 적은 힘으로 그들은 많은 물을 끌어 올렸소. 가뭄에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소(曩者過紹興府時有人在湖岸運水車以灌水田 用力小而上水多 可爲當旱農稼之助)’ 부영이 말했다. ‘제작은 목공이 알고 있소. 나는 잘 모르오. 수차는 다만 물을 대는 데 쓰일 뿐인데, 굳이 배울 것까지야 없소(其制木工所知 我未之詳 水車只用汲水而已 不足學也)’ 최부가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논이 많은데 자주 가뭄을 겪소. 이 방법을 배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 농사에 도움이 된다면 귀하의 한마디의 수고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무궁무진한 이익이 될 것이오(我國多水田 屢值旱乾 若學此制以教東民 以益農務 則足下一唇舌之勞 可爲我東人千萬世無窮之利也)’”

## 11. 청렴결백(清廉潔白)한 생애

최부의 청빈한 삶이 표해록의 기록에서 그 일단(一端)을 엿볼 수 있다.

◇ 3월 29일, 최부가 북경에 체류할 때 방문한 하왕(何旺)과 문답 중에 고향에 있는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고 어머니는 상중에 계시오. 내 동생은 어려서 세상물정에 어둡소. 가정이 빈한하여 조석으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소. 게다가 내가 바다에 표류되었으니 내 가족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오(父新死母當喪 弟又少不更事 家又貧窶 不保朝夕之際 我適漂海 其存其沒 家莫聞知)”

◇ 4월 3일, 역시 북경 체류시, 홍려시(鴻臚寺) 주부(主簿)인 이상(李翔)과의 문답 과정에서 고향 집의 제수(祭需)의 부족 등 빈한(貧寒)한 생활을 근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또한 노령이시며 아우는 유약하고 집은 가난하기만 하오. 상을 치르는데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오(父已死母又老弟幼弱 家貧窶 治喪所需皆闕如也)”

1538년 청백리(清白吏)로 선정된 조선의 문신(文臣) 송흠(宋欽)과의 대화에서 최부의 청렴과 결백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지지당(知止堂) 송흠(1459-1547)은 신평 송씨로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나,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서 관직을 시작했으나 연산군 학정에 못 이겨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했다. 중종반정 이후 벼슬길이 다시 열려 보성 순천 여산 등 전라도의 여러 수령을 역임하고, 나주 광주 등의 목사나 부사도 지냈으며 담양부사, 전라감사, 한성부좌윤, 이조와 병조의 판서에 오르고 우참찬과 관중추부사 등의 고관대작을 역임하기도 했다. 송흠은 최부의 이웃 고을 출신으로 최부가 대선배의 위치에 있었다. 이웃 고을에 최부가 귀향해 있음을 안 송흠이 선배를 찾아 말을 타고 갔었다. 후배 송흠을 반갑게 맞이한 최부는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어떤 말을 타고 왔느냐고 송흠에게 물었다. 송흠은 나라에서 휴가 차 오는 관리에게 내주는 말을 타고 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기 집에서 최부의 집까지는 어떤 말을 타고 왔느냐고 묻자, 같은 말을 타고 왔노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부는 화를 내면서, 공무로 타고 왔으니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괜찮으나, 고향집에서 자신의 집까지는 사무(私務)로 온 일인데 왜 나라의 말을 타고 왔느냐고 꾸짖으며 상경하면 나라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겠노라고 했다. 최부는 상경하여 끝내 나라에 고발하여 송흠은 처벌을 받았다. 송흠은 그 때의 충고를 거울삼아 공직에 재직 시 수신(修身)을 게을리 하지 않아, 고위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또한 청백리(清白吏)의 대표적 인물로 후세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인연으로 탐진 최씨와 신평 송씨는 가깝게 지내고 있다 한다.

## 12. 상복의 윤리

최부가 예부의 관리들과 상복의 착용을 끝까지 고집한 사실은 전 서울대 총장 고병익(高柄翊)이 1964년의 이상백(李相伯) 박사 『회갑기념논총(回甲紀念論叢)』에 실린 “상복(喪服)의 윤리”에서 소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예제(禮制)의 본고장인 중국에 가서 그 예부의 관리들을 상대해서도 거의 일보 양보 없이 끝까지 상복 착용을 고집한 사실은 정통적인 유교학자로서 그 사고와 행동이 어떠한 불의의 고난 속에서도 그의 윤리관을 위해서 얼마나 타협 없는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표해록]의 기록을 보자.

◇ 4월 18, 최부는 북경 조정의 예부(禮部) 소속 관원으로부터 입궁(入宮)하여 황제로부터 수상(受賞)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그 관원은 상복을 예복으로 바꾸어 입고 황궁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최부가 답변을 한다.

“내가 바다에서 표류할 당시 풍파를 견디지 못하여 모든 짐 꾸러미를 버렸소. 겨우 이 상복을 간직하며 이곳에 온 것이오. 예복은 하나도 없소이다. 또한 상중에 평복으로 갈아입는다면 예에 합당치 않을 것 같소. 더욱이 상복을 입고 입조(入朝)하는 일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니, 대신들이 상례에 관한 제도를 참작한 후 어찌해야 할지 다시 알려 주시오 (臣對曰 我漂海時不勝風浪 盡撒行李 僅守此喪服來 無他吉服 且我當喪即吉 恐不合於禮 且以喪服入朝 義又不可 請大人斟酌禮制 更示何如)”

이에 대해 중국의 관원들은 서로 숙의를 한 후, 최부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내일 아침 상을 받을 때는 의식 절차가 없을 것이오. 귀하를 대신하여 하급자가 상을 받도록 하시오. 그러나 모레 황제에 사은(謝恩)할 때는 귀하가 직접 황제에게 절을 하시오. 반드시 참석하시오(明早受賞時 無展禮節次 可令你從吏代受 明後日謝恩時 你親拜皇帝 不可不參)”

◇ 4월 19일, 중국 관원은 내일 황제를 만날 때 최부가 상복 착용을 고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최부의 종자에게 미리 다짐을 한다.

“중국 관원인 이상(李翔)이 최부의 수행원인 정보(程保)에게 말했다. ‘당신 상관에게 내일 아침 길복으로 입고 와서 황제에게 사은해야 된다고 알려시오.’ 잠시 후 홍려시의 이름을 잇은 관원인 서(徐)라는 자가 와서, 정보 등의 관대(冠帶)를 착용했는지를 점검하고 숙매의 절차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翔謂程保曰 告你官 明早以吉服來謝皇帝之恩 有徐序班者 忘其名 來點程保等具冠帶 教以肅拜節次之儀)”

전갈을 받은 최부는 정보에게 이상의 사자를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친상(親喪)은 반드시 정성을 다 해야 할 일이오. 화려한 옷을 입는다면 효가 아니오.

나 역시 사람의 아들로 어찌 상복을 경솔하게 버리고 불효의 평판을 얻는다는 말이오?(親喪固所自盡也 若服華盛之衣 謂之非孝 我亦人子 其可輕釋喪服 處身於非孝之名乎)”

◇ 4월 20일, 어쩔 수 없이 최부는 입궐하러 이상의 뒤를 따랐지만, 차마 예복으로 갈아 입을 수 없었다. 그러자 이상이 대궐 안에서 삼베 옷을 입을 수는 없다며 직접 최부의 상관을 벗기고 사모(관복을 입을 때 쓰던 모자)를 씌우면서 말했다.

“당신은 길복을 입고 이 문을 통해 가시오. 사은의 의식이 끝나서 이 문을 통해 떠날 때, 다시 상복으로 갈아 입으시오. 단지 눈 깜박할 동안일 것이오. 일의 한 면만 고집한다면 융통성이 없다고 할 것이오(汝今自此門 吉服而入 行謝禮畢 復出此門時 還服喪衣 只在頃刻間耳 不可執一無權也)”

사세부득이 최부는 먼동이 틀 무렵 궁궐의 뜰에서 황제에게 사은(謝恩)의 절을 마친 후 대궐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최부가 몸소 준행(遵行)한 유학의 논리와 도덕은 논어, 효경과 가례(家禮) 등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중국사회과학원 정성굉(鄭成宏) 교수가 국제학술좌담회의 주제발표에서 술회하였다.

### 13. 일본 및 미국의 『표해록』 번역자들의 왜곡과 오역

1769년 『표해록』을 『당토행정기』라는 이름으로 책 이름을 바꿔 일본어 고어체로 축약(縮約) 번역한 일본의 유학자인 기요타 기미카네(清田君錦: 1719~1785)는 그의 “고(考: 注와 같은 의미)”에서 최부의 기술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 즉 최부가 중국 절강성 삼문현(三門縣)에 위치한 건도소(健跳所)를 지나면서 건도(健跳) 출신으로 중국의 과거에 급제한 장보(張輔)를 만나게 된다. 장보는 최부에게 과거 급제자 명단이 적혀 있는 소록(小錄)을 보여주며 자랑한 후 자신의 집으로 안내 한다. 그의 집 앞 거리에 “과거에 합격한 장보의 집(丙午科張輔之家)”이라고 크게 새겨진 2층짜리 정문(旌門)을 최부에게 과시한다.

◇ 윤달 정월 24일, 최부도 이에 질세라 신분을 과장하는데 ---

“최부 역시 허황된 말로 자신을 과시했다. ‘나는 두 번이나 과거에 급제했소. 쌀 2백석의 봉록을 받고 있으며, 내 정문은 3층으로 되어 있소. 귀하는 나에게 미치지 못하오.’ 장보가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소?’, ‘내 정문이 멀리 있어 가져올 수 없지만, 여기에 문과 중시 명부가 있소.’ 최부는 명부를 펼쳐 보여 주었다. 장보가 거기에 적혀 있는 성명과 직함을 보고서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는 당신의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소(臣亦以浮誕之言誇之 曰

我再中科第 歲受米二百石 旌門三層 足下其不及於我矣 輔曰 何以知之 臣曰 我之旌門 遠莫致之 我有文科重試小錄在此 卽撥示之 輔於錄中 見臣職姓名 下跪曰 我殆不及矣)”

장보가 예부 을과에 합격한 것을 가지고 과시를 하자, 대과(大科)에 두 번이나 장원으로 합격한 최부는 그의 표현대로 허황된 말로 장보의 기를 꺾기 위해서 자신이 받는 녹봉을 부풀렸다, 이를 두고 기요타 기미카네는 소위 “고(考)”를 달아, 최부의 녹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아냥거렸다. “매년 쌀 2백석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 관리의 녹봉이 빈약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에는 2천석 이상의 신하가 수천, 만석 이상의 신하가 수십 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사실을 말한다 해도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무릇 천지간에 우리 대일본에 필적할 만한 나라는 절대로 없다.”

◇ 5월 16일, 광녕역에 이르러 최부는 조선의 성절(聖節) 사신을 만난다. 사신은 최부의 표류 전말을 들은 후,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연회를 베푼다. 이의 장면을 보자, “밤에 사신은 달빛을 받으며 뜰 중앙에 자리를 잡고 최부를 그 앞에 불러내어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였다(夜乘月 使臣坐中庭 邀臣至前設酌以慰)” 이를 두고 『당토행정기』의 저자인 기요타 기미카네는 그의 “고(考)”에서 최부가 상중(喪中)에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놓고 사신이 베푼 주석에서 음주를 했다며 언행불일치라고 빈정뚫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표해록』을 영역한 존 메스킬(John Meskill) 전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의 『Choe Pu's Diary: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에서도 연회 대목을 “The Envoy served Choi Bu wine to console him” 즉 사신이 최부에게 술을 대접했다고 영역했다. 한문 원본 “使臣坐中庭 邀臣至前設酌以慰”의 “設酌以慰”를 연회를 베풀어 위로했다고 해석을 해야지, 술을 대접했다고 번역한 것은 큰 오역이다. 표해

록의 전체를 읽어보면 중국 관리나 민간인들이 술 등 상중(喪中) 기피 음식을 대접하려 했으나 최부가 한사코 거절하는 대목이 자주 나온다. 조선의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최부가 일본인의 비아냥처럼 상중에 한방울이라도 음주를 하였다면 최부가 귀국한 후 조선 조정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